

ZOOM
-IN최근 핀플루언서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감독
강화 추세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핀플루언서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투자 피해 등의 위험성 또한 확대되자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영국 FCA는 2024년 3월 핀플루언서가 금융상품을 홍보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하고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시와 집행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미국 SEC와 FINRA 또한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집행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2024년 6월 핀플루언서를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2024년 7월 핀플루언서 활동 규제를 위한 투자자문 제공 지침을 업데이트
- 국내 또한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핀플루언서에 대한 강력한 관리 체계가 필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핀플루언서¹⁾들의 시장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또한 확대
 - 핀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 관련 정보 및 투자조언 등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금융사의 자문 역할을 대신 수행
 - 핀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산관리, 가상자산, 금융 트렌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주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후원 게시물 광고, 추천 또는 특정 금융상품 홍보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
 - 최근 소셜미디어가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융에 초점을 맞춘 핀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²⁾
 - FINRA 연구³⁾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미국 투자자의 6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 반면, 금융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람은 57%에 불과

1) 핀플루언서(finfluencer)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 금융정보와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2) 이 외에도 FCA의 데이터에 따르면 18~29세의 62%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며, 그 중 74%가 인플루언서의 조언을 신뢰한다고 답함. 또한 젊은 연령대의 SNS 팔로우의 90%는 핀플루언서로부터 금융 행동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3) FINRA, 2022,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Changing Landscape*.

- CFA 분석 보고서⁴⁾에서는 핀플루언서는 특히 젊은 연령대의 투자자와 유색인종 투자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 투자자문업자보다 소셜미디어, 거래 앱 등을 통한 정보 출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포럼(WEF)⁵⁾은 향후 Z세대가 얻는 금융정보는 핀플루언서가 주도할 것이며, 금융정보는 소셜미디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증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를 통한 허위정보 제공, 과장광고, 시세조종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사례 또한 잇따름
- SEC는 2023년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투자 관련 사기로 인해 총 27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의 37%는 20~29세 투자자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고⁶⁾
 - Barclays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인 30%가 소셜미디어에서 사칭 사기의 표적이 되었으며, 투자사기 피해자의 26%가 30세 미만, 모든 투자사기의 77%가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⁷⁾

□ 이처럼 핀플루언서의 활동에 위험성을 내포함에 따라 해외 금융당국에서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 IOSCO는 핀플루언서가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투자자 피해를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우려⁸⁾
- 핀플루언서 인증제도의 미비, 일반 투자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기,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의 홍보 및 조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해상충 문제 등의 위험성을 보유했다
- IOSCO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핀플루언서와 같은 소셜미디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고, 2024년 의제에서 이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 디지털 시대에 핀플루언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⁹⁾
- 감독당국은 핀플루언서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 또한 핀플루언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 발표, 사전 인증제도 도입, 단속을 통한 집행조치 부과 등을 통해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4) CFA, 2024, *The Finfluencer Appeal: Investing in the Age of Social Media*.

5) WEF, 2024. 7. 17, Are 'finfluencers' the future of financial advice?

6) *ibid.*

7) Barclays, 2023. 7. 10, Over a quarter of investment scam victims are under the age of 30.

8) IOSCO, 2024, *Finfluencers*, Consultation Report.

9) IOSCO, 2024. 4. 12, IOSCO publishes an updated Workplan, Media Release.

- 영국 FCA는 2024년 3월 소비자보호 규정(Consumer Duty)의 일부로 핀플루언서가 금융상품을 홍보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¹⁰⁾하고,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시와 집행조치를 강화
- FCA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서비스 및 상품 광고가 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하고 적절한 위험 경고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
 - 지침은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고위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광고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금융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
 - 그리하여 FCA 승인기관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광고만 허용하도록 하고, 만약 승인받지 않은 금융상품을 홍보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
 - 핀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기 전 FCA가 지정한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 승인 없이 콘텐츠를 광고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
 - 또한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표적조치(target action)를 시작하고 심문, 핀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경고 발령, 기소 등 적극적으로 단속
 - 5월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차액결제거래 매매에 대해 승인 없이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홍보한 혐의로 9명을 기소하였으며, 10월에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표적조치로서 20명의 핀플루언서를 주의 하에 심문
- 미국 SEC와 FINRA, FTC는 핀플루언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및 규칙을 운영 중이며,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집행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 현재 미국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서 특정 활동 또는 특정 핀플루언서를 관리하는 법률을 포괄적으로 규율¹¹⁾하고 있으며, FINRA Rule을 통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금지사항을 명시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도 사기성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FTC법 제5조를 시행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도 이를 적용하였으며,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에서 추천 및 조언의 활용을 다루는 지침을 발행하고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집행조치를 수행
 - FINRA는 2023년 2월 기업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핀플루언서 및 추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의 고려사항을 담은 지침을 발표¹²⁾

10) FCA, 2024, *Finalised Guidance on Financial Promotions on Social Media*, Finalised Guidance 24/1.

11) 증권법 제12조, 제17조, 증권거래법 제9조, 제10조 및 Rule 10b-5, 투자자문업자법 제206조(4)-1조 등에 의거

12) FINRA, 2023, *FINRA Provides Update on Sweep: Social Media Influencers, Customer Acquisition and Related Information Protection, Rules & Guidance*.

- 2024년 SEC 및 FINRA는 핀플루언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견책과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집행조치를 취함
 - SEC는 2024년 2월 새로운 ETF 출시에 참여한 핀플루언서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등록 투자자문사에 대한 집행조치로 17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¹³⁾
 - FINRA는 2024년 3월 핀플루언서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의 징계조치로서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에 대해 8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¹⁴⁾
- 다만, 미국은 현재 핀플루언서에 특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1월에는 투자자문위원회(Investor Advisory Committee: IAC)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서 SEC에 핀플루언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 제정을 제안¹⁵⁾
 - 핀플루언서가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이 외에도 핀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지침 발행,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개, 핀플루언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점에 관한 투자자 교육 제공 등을 제시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2024년 6월 핀플루언서의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핀플루언서를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¹⁶⁾

- 2023년 인도 광고표준위원회(ASCI)는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시장조작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하고 은행, 금융서비스 및 보험 부문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SEBI 등록을 의무화¹⁷⁾
 -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핀플루언서는 SEBI에 투자자문 또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등록한 후에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¹⁸⁾, 이름을 포함한 자격증명 공개 및 명확한 이해상충 방지 등을 요구
- 2024년 6월에는 SEBI가 미등록 핀플루언서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대상 기관과 미등록 핀플루언서 간의 연계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
 - 뮤추얼펀드, 리서치 애널리스트, 등록 투자자문사 및 주식 중개인 등 규제대상 기관이 미등록 핀플루언서와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벌금 등을 부과

13) 1940년 투자회사법 제15조(c),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제206조(2) 및 206조(4)항을 위반한 혐의

14) FINRA는 2024년 FINRA Rule 2210 및 2010 위반혐의로 현재까지 총 3건의 핀플루언서 관련 집행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i) 핀플루언서 게시물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사례, ii) 기업이 핀플루언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 또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핀플루언서를 감독하기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례, 마지막으로 iii) 부정확한 개인정보 고지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3자와 비공개 정보를 공유한 사례로 견책 및 벌금을 부과

15) SEC, 2024. 11. 22, Recommendations of the disclosure subcommittee of the SEC investor advisory committe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ir interactions with finfluencers.

16) SEBI, 2024. 6. 27, SEBI board meeting, Press releases.

17) ASCI, 2023, *Guidelines For Influencer Advertising In Digital Media*.

18) SEBI (Investment Advisers) Regulations, 2013 및 SEBI (Research Analysts) Regulations, 2014에 따른 의무화

- 12월에는 핀플루언서 단속을 강화하여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7개 기관에 대해 증권시장 참여 금지, 이익 환수 등을 조치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2024년 7월 핀플루언서 활동 규제를 위한 투자자문 제공 지침을 업데이트¹⁹⁾

- SC는 소셜미디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투자자문 제공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 하고, 핀플루언서를 규제 대상으로 편입
- 해당 지침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핀플루언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SC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고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RM의 벌금 또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이중처벌도 가능함을 명시

□ 위와 같은 국가 외에 프랑스, 호주의 경우 일찍이 핀플루언서에 대한 자격인증 제도, 법적 책임에 관한 지침 등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

- 프랑스 광고자율규제기관(ARPP)은 2020년 인플루언서 자격인증 제도인 Responsible Influence Certificate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부터 금융시장청(AMF)과 협력하여 금융 부문의 인플루언서에 특화하여 해당 제도를 운영²⁰⁾
 - 핀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표준 교육과 자격인증 시험 2단계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핀플루언서가 작성한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또한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을 명시
- 호주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일찍이 도입한 국가로 2022년 3월 ASIC는 핀플루언서 및 핀플루언서 활용 금융서비스 인가기관(Australia Financial Services: AFS)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침 성격의 정보문서를 발표²¹⁾하였으며, 이후 핀플루언서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처벌함
 - 정보문서에는 인플루언서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홍보 활동하기 위해서는 AFS 라이선스가 요구되며, 핀플루언서를 활용하는 AFS 라이선스 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실사 수행,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 수립, 핀플루언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현 및 배포 의무 등을 설명

19) SC, 2024, *Guidance Note on th Provision of Investment Advice*.

20) AMF, 2023. 9. 7, The AMF and the ARPP launch the Responsible Influence Certificate in finance.

21) ASIC, 2022, *Information Sheet 269*.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법인의 경우 백만호주달러 이상의 벌금형 부과를 명시
- ASIC은 정보문서 발간 이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된 핀플루언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적 제재를 수행하였으며, ASIC의 이러한 단속 강화로 2023년 호주의 핀플루언서 이용자 수가 전년대비 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²²⁾

〈표〉 해외 국가의 핀플루언서 규제 주요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
영국	· FCA에 사전 승인받은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홍보만 허용	· 무제한 벌금 및 최대 2년 징역형 · 이중처벌 가능
미국	· FINRA Rule: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금지사항 명시 ·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 · FTC법 제5조: 사기성 광고를 금지	·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로 최대 5백만달러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형, 이익환수(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금, 중지명령 등 · 이중처벌 가능
인도	· 핀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SEBI 등록 의무화: 자격증명, 이해상충 방지 등을 공개 · 규제대상 기관과 미등록 핀플루언서 간의 연계 활동 금지	· 영업금지, 이익환수, 벌금형 등
말레이시아	· 금융상품 홍보를 위한 핀플루언서 활동 시 SC 자격취득 및 요구사항 준수 의무화	· 최대 1천만RM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 이중처벌 가능
프랑스	· 핀플루언서 자격인증 제도 운영: 인증시험, 교육 및 모니터링 절차 · 통화금융법: 핀플루언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명시	· 최대 30만유로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호주	· 핀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사전 AFS 라이선스 요구 · 핀플루언서 활용 AFS 라이선스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 형사처벌: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600 penalty unit(약 AU\$19.8만), 법인은 6,000 penalty unit(약 AU\$198만) · 민사적 제재: 개인은 5,000 penalty unit(약 AU\$ 165만) 또는 3배 이익환수 중 큰 금액, 법인은 50,000 penalty unit(약 AU\$1,650만) 또는 3배 이익환수 또는 연간매출의 10% 중 가장 큰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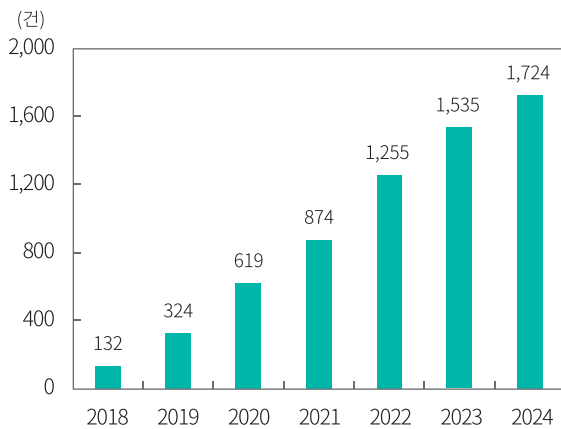
□ 국내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핀플루언서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등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핀플루언서에 대한 강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

— 소셜미디어에서 별도의 자격 없이 무분별한 투자조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핀플루언서가 증가

22) Money Management, 2023. 9. 19, Finfluencer usage drops on back of ASIC crac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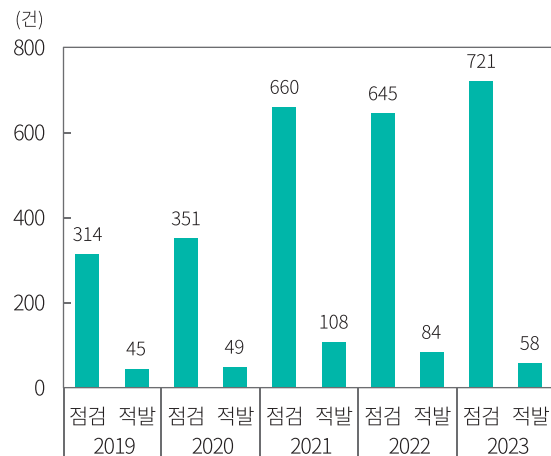
- 현재 금융당국은 사전 등록을 통해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투자자문업자로 구분하여 규율
 - 최근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가능성 또한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들의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²³⁾
- 최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핀플루언서를 단속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 개의 종목에서 선행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핀플루언서를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²⁴⁾
-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의 사전감시와 사후제재 등의 강력한 관리 체계가 요구
- 핀플루언서 및 이들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마련 등을 고려
 - 또한 위험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 환경을 조성할 필요

〈그림 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누적)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행위 적발 현황



선임연구원 안유미

23) 금융위원회, 2024. 5. 22,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

24) 금융위원회, 2024. 12. 5,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 조치, 보도자료.